전통 유기鍮器, 그 빛깔과 아름다움

전통 유기鍮器, 그 빛깔과 아름다움

발행일 | 2015년 5월 1일
발행처 | 동산박물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정광터 1길 108-8
Tel 041-858-5009
E-mail museume@hanmail.net
홈페이지 www.dongsanmuseum.org

제작 | 도서출판 심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25-2
Tel. 042-635-9942 Fax. 042-635-9941

* 이 책에 실린 글과 도판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동산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도록은 '2015년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으로 제작되었습니다.

東山博物館
DONG-SAN MUSEUM

총괄 | 이정복
전시기획 | 이영란 · 이상원
논고 | 이상원
전시진행 | 이준호, 이수형
편집 | 이상호
인턴 | 유창훈
사진 | 윤영진

일러두기

o 본 도록은 동산박물관이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엄마와 함께 박물관 가는 날' 과 병행 개최한 기획전 '전통 유기(鍮器), 그 빛깔과 아름다움' 展의 전시도록이다.
o 수록된 유물은 2015년 4월 현재 동산박물관 소장 유물 중에서 선정한 것이다.
o 유물의 크기는 가로×세로, 높이, 지름 등으로 표기하였으며, 실측단위는 센티미터(cm)이다.

인사말 Foreword

동산박물관은 2015 봄 기획전시로 '전통 유기(鍮器), 그 빛깔과 아름다움' 展을 개최합니다.

전통 놋그릇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전시와 연계하여 어린이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엄마와 함께 박물관 가는 날' 을 다채롭게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5년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으로 시행합니다.

유기는 아름답고 튼튼할 뿐만 아니라 무독무취의 금속으로 어떤 재료보다도 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사용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출품된 유물을 보면 고려의 밥주발과 수저, 정병과 마상배, 동경, 조선의 종묘제기인 작과 보, 심지가위, 새옹, 연적, 필묵통 등과, 근대 유물인 놋밥통, 놋상, 요령, 등경, 소코뚜레집게, 엿장수가위 등 각종 유기제품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노르스름한 색깔과 함께 은근한 품위가 있던 전통 유기는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우리 삶과 밀접한 생활용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대 기술의 발달로 전통 유기들이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스틸, 플라스틱, 도자기 제품 등에 밀려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 되었고, 어느덧 유기라는 명칭조차 낯설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어린이는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즐기고, 성인은 다양한 형태의 유기를 재조명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함께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관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동산박물관장 이정복, 이수형

차례 Contents

인사말 Foreword

도판 Plates

청동발(靑銅鉢)	청동발(靑銅鉢)	청동발(靑銅鉢),대접	청동잔(靑銅盞)
청동합(靑銅盒)	청동접시(靑銅접시)	청동정병(靑銅淨甁)	동경(銅鏡)
청동방울(靑銅鈴)	청동수저(靑銅匙箸)	청동수저(靑銅匙箸)	청동수저(靑銅匙箸)
놋주발(周鉢)	놋주발(周鉢), 대접	놋귀대접	새옹
놋주걱	국자(鞠子)	놋밥통	놋상(鍮床)
양푼	장구꺽쇠(갈고리쇠)	꽹가리	징
요령(鐃鈴)	주전자(酒煎子), 잔(盞)	향합(香盒)	향로(香爐)
촛대(燭臺)	제기(祭器)접시	제기(祭器)접시	편틀
편틀	보(簠)	작(爵)	궤(簋)
바라	좌종(坐鐘)	불기(佛器)	필묵통(筆墨筒)
연적(硯滴)	먹통(墨筒)	무구(巫具)	종(鐘)
심지가위	엿장수가위	워낭(소방울)	소코뚜레집게
화병(花甁)	다리미	놋등경(鍮燈)	대야(大匜)
비녀(龍簪)	놋재떨이	놋요강(尿缸)	가마요강(尿缸)
놋화로(火爐)	놋화로(火爐)	불기(佛器)	

논고 Article

한국의 전통 鍮器에 관한 一考

유기 鍮器

청동발 青銅鉢, 대접
(우) 높이 8.1, 지름 15.0 조선

청동발 青銅鉢
높이 8.5, 지름 15.1 조선

청동발 青銅鉢, 대접
(좌) 높이 8.6, 지름 15.3
(우) 높이 7.0, 지름 17.2 고려

청동잔 青銅盞
(중) 높이 6.6, 지름 7.5 고려

청동합 青銅盒
(우) 높이 16.3 고려

청동접시 青銅접시
(우상) 높이 2.6, 지름 16.7 고려

청동정병 青銅淨甁
높이 32.5 고려

동경 銅鏡
(우) 지름 10.0 고려

청동방울 青銅鈴
높이 3.4 고려

청동수저 青銅匙箸
(좌) 길이 29.0, (우) 길이 25.2 고려

청동수저 青銅匙箸
(젓가락 대) 길이 24.0 조선

놋주발 周鉢
(우) 높이 7.9, 지름 11.8 근대

놋주발 周鉢 대접
근대

놋귀대접
5.4×7.9, 높이 6.5 근대

새옹
높이 13.0, 지름 23.7 조선

놋주걱
(우) 길이 34.5 근대

국자 鞠子
(좌) 길이 46.5 근대

놋밥통
높이 13.0, 지름 30.0 근대

놋상 鍮床
높이 21.0, 지름 46.5 근대

양푼
높이 14.0, 지름 43.0 근대

장구꺽쇠(갈고리쇠)
길이 5.2 근대

꽹가리
(우) 지름 21.0 근대

징
(우) 높이 9.5, 지름 37.5 근대

요령 鐃鈴
(우) 20.8 근대

주전자 酒煎子, 잔 盞
(우) 높이 15.0, (중) 높이 4.8, 지름 7.4 근대

향합 香盒
(좌) 높이 7.0, 지름 11.3 근대

향로 香爐
(좌) 높이 22.2 근대

촛대 燭臺
높이 38.0 근대

제기 祭器 접시
(앞)높이7.5, 지름 19.2
(뒤) 높이 7.0, 지름 15.7 조선

제기 祭器 접시
높이 7.3, 지름 13.5 근대

편틀
(좌) 22.5 22.5, 높이 9.3 근대

편틀
(좌) 24.8 16.8, 높이 8.4 조선

보 簠
27.0×19.5, 높이 11.0 조선

궤 簋
(좌) 19.7 15.0, 높이 7.0 조선

작 爵
17.8×12.0, 높이 15.9 조선

바라
지름 22.7 근대

좌종 坐鐘
높이 17.5, 지름 25.8 근대

불기 佛器
근대

필묵통 筆墨筒
(뒤) 길이 19.5 근대

연적 硯滴
높이 3.0, 지름 5.0 조선

먹통 墨筒
(우) 7.2 7.2, 높이 2.9 근대

무구 巫具
(무령 길이 17.5, 명두 지름 22.0, 삼지창 길이 26.0, 신칼 32.0) 근대

종 鐘
높이 22.2, 지름 25.2 근대

심지가위
길이 20.5 조선

엿장수가위
(좌) 길이 27.5 근대

워낭(소방울)
(좌) 높이 11.8 근대

소코뚜레집게
길이 19.6 근대

화병 花甁
높이 15.2, 지름 9.0 근대

다리미
길이 36.5, 지름 16.6 근대

놋등경 鍮燈
높이 20.8 근대

대야 大匜
높이 12.1, 지름 48.7 근대

비녀 龍簪
(뒤) 길이 31.7 근대

놋재떨이
(좌) 길이 18.6 근대

놋요강 尿缸
(좌) 높이 22.0, 지름 16.3 근대

가마요강 尿缸
(좌) 높이 10.0, 지름 9.6 근대

놋화로 火爐
(우) 높이 19.4, 지름 38.5 근대

놋화로 火爐
높이 23.5, 지름 27.8 근대

불기 佛器
높이 21.0, 지름 36.6 근대

한국의 전통 鍮器에 관한 一考

이상원(동산박물관 학예사)

목차

Ⅰ. 머리말
Ⅱ. 유기의 역사
Ⅲ. 제작방법
Ⅳ. 유기의 종류와 특징
Ⅴ. 맺는말
참고문헌

Ⅰ. 머리말

우리 조상은 예로부터 놋쇠로 일상 생활용품이나 기구를 만들어 써왔다. 이를 유기 또는 놋그릇이라고 하는데 주발, 대접, 대야, 요강, 촛대, 향로, 징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유기를 즐겨 사용하였다. 특히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였는데 '여름에는 사기그릇, 겨울에는 놋그릇' 이란 말이 있을 정도였다. 돌 선물로 아이에게 놋으로 만든 놋그릇을 주기도 했는데 이 경우 유기합의 뚜껑에 '축 돌기념' 이라고 문자를 새겨 넣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르스름한 색깔과 은근한 품위가 있던 전통 유기들이 최근에는 알루미늄 제품이나 스테인레스스틸 제품, 플라스틱 제품, 도자기 제품 등에 밀려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근대에 난방 및 취사용 연료로 나무 대신 연탄을 사용하게 되면서 연탄가스로 인하여 유기가 쉽게 변색되고 녹이 슬자 유기의 사용이 단절되고 단지 일부 농악기나 제기(祭器) 불구(佛具) 등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동안 동산박물관에서 도자기 제품과의 비교 연구를 위하여 수집하였던 유기제품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함으로써 청동합과 정병과 같은 고려시대 제품으로부터 근대의 놋그릇에 이르기까지 유기의 여러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Ⅱ. 유기의 역사

유기는 청동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의기(儀器)ㆍ무기ㆍ생활용기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놋쇠는 구리에다 주석이나 아연ㆍ니켈을 섞은 합금으로 청동기시대의 청동도 놋쇠의 일종이다. 즉 서기전 7세기경부터 사용되었던 놋쇠는 청동으로, 거울ㆍ동탁ㆍ동검 등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동기 문화는 시베리아의 '미누신스크-스키타이' 청동기 문화와 관련이 있는 북방계의 '오르도스-요령지방' 청동기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 시대 초기에는 비파형동검과 조문경을 제작하였고, 후기가 되면 세형청동검을 독자적으로 주조하여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다뉴세문경, 방울, 의식구를 비롯한 각종의 도구를 제작하였다.

이 청동기시대는 2세기경에 끝이 나고, 그 뒤 7세기경에 페르시아와 이란 등지에서 발달된 유기제작기술이 당나라에 유입되었으며, 그 영향을 받은 신라에서는 8세기경에 전문적으로 유기제작을 전담하는 관서인 철유전(鐵鍮典)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에는 1010년 현종 때에 흥천사(興天寺) 범종과, 1223년 고종 때에 화병을 만들어 흥복사(興福寺)에 두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각종 생활용기가 놋쇠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고려시대 평민의 무덤에서도 놋쇠숟가락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식기로서도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의 놋그릇은 식기와 같은 생활용기뿐 아니라 농악기나 각종 불구(佛具)에 속하는 종ㆍ금고(金鼓)ㆍ정병(淨甁)ㆍ향로ㆍ금동탑ㆍ사리함ㆍ제기 등이 제작되어 금속공예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빛깔이 고운 '고려동'을 생산하여 중국과 교역을 하였다. 왕족과 귀족은 방자기법으로 제작하여 동체가 얇고 질긴 청동그릇을 식기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국가에서 구리 채굴에 노력을 기울여 유기 생산을 장려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국가에서 쓰는 유기를 전담하여 놋그릇을 만드는 유장(鍮匠)을 중앙 장인인 경공장(京工匠)으로 공조(工曹)에 8명, 상의원(尙衣院)에 4명을 두었고, 지방 관아에 필요한 유기를 만드는 외공장(外工匠)도 상당수 배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밖에도 민간인 유기장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정책의 영향으로 불교적 색채를 띠는 금공품이 많지 않았던 반면 담배함, 화로, 향로, 반상기 등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주는 형태의 생활용품과 민예품이 많이 제작되었다.

특히 도자기 식기가 보편화된 조선시대였음에도 유기는 상류층에서 겨울철에는 도자기에 비해 보온력이 뛰어난 유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도 생활 용구로 사용되어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고 시장을 형성하였다. 보수성이 강한 제기류는 전례를 충실히 따라 유기의 사용을 규범화했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는 놋점 또는 놋전이라고 불리는 유기점이 따로 있어 각종 식기류와 풍물류의 놋그릇을 판매하였다.

근대 말에는 일본에 의한 유기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각 가정에서 소유한 거의 모든 유기들을 수탈당하였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유기는 다시 성행하기 시작하여 6ㆍ25 전까지는 개성ㆍ안성을 비롯하여 김천ㆍ남원ㆍ남원ㆍ운봉ㆍ전주ㆍ홍성ㆍ박천ㆍ평양ㆍ사리원ㆍ정주ㆍ서울 등지에서 놋그릇을 많이 만들었으나, 6ㆍ25 전쟁 이후 연탄을 사용하면서부터 연탄가스에 변색되기 쉬운 놋쇠의 성질 때문에 스테인레스 그릇을 선호하게 되어 유기는 점차 사라졌다.

Ⅲ. 제작방법

고려는 금속공예가 발달하여 청동정병, 청동향로, 동경 등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12세기에는 각종 유기들이 실생활에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에 사용된 식기와 제기 같은 놋그릇을 보면 방짜(方字)기법으로 만들어져 동체가 아주 얇고 질기다.

이처럼 질이 좋은 유기는 전통유기 제작방법인 방짜기법 즉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두드려서 만들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조 중엽이 되어 반상기, 향로, 화로 등과 같은 놋으로 만든 일상생활용품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방짜기법 대신 손쉽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주물기법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이 주물유기는 방짜유기의 합금과는 달리 구리와 아연의 합금을 주로 썼다.

현재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놋그릇 제작 방법은 경기도 안성지방에서 만들었던 주물제작법(鑄物製作法), 평안북도 정주 납청(納淸)지방에서 만들었던 방짜제작법(方字製作法), 전라남도 순천지방에서 만들고 있는 반방짜제작법(半方字製作法) 등이 있다.

주물유기와 방짜유기는 서로 제작기술이 다르다.

주물제작법이란 구리에다 주석이나 아연을 7 대 4의 비율로 혼합한 쇳물을 녹여, 그릇의 형태를 만든 틀 즉 거푸집에다 부어넣은 다음 다듬고 광을 내어 완성하는 기법으로, 쉽게 놋그릇을 만드는 방법이다. 보통 식기류를 제외한 향로ㆍ촛대ㆍ재떨이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다.

주물유기로 가장 유명한 곳은 개성과 안성지방인데, 안성의 유기는 조형미가 아름다워 '안성맞춤'이라는 속담이 나올 만큼 품질이 좋았다.

방짜제작법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불에 달구어가며 망치로 여러 차례 두드려 만드는 단조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쇳물을 녹여 바대기라 불리는 바둑알처럼 둥굴납작한 쇳덩이를 만들어, 11인이 한조가 되어 불에 달구어가면서 두들겨 그릇의 형태를 이루는 방법이다. 전통 타악기나 음식을 담는 식기류를 만드는 데 쓰였다. 이때 주석의 비율이 일반 청동 그릇에 비해 훨씬 높다.

방짜는 유석에 구리와 주석 이외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두들겨 기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특히 방짜유기는 안성지방을 중심으로 납청과 함양 등지에서 크게 번성했던 대표적인 유기제작기법으로서, 불꽃의 온도를 감지하고 전통 타악기의 음률을 고르기 위해 소음이 적은 밤에 주로 작업했다. 방짜를 일명 '양대(良大)'라고도 하는데 북한의 납청 지방에서 쓰는 말이다. 평야지방에서는 방짜유기로 된 징ㆍ꽹과리 등이 성행하였고, 북한의 산간지방에서는 놋상ㆍ놋동이ㆍ놋식기 등이 성행하였다. 여러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제조해야 하므로,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고도의 숙련 기술이 요구된다.

이처럼 주물유기는 제작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데 비해 방짜는 11명의 잘 훈련된 유기장을 한조로 하는 치밀

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각 공정을 마무리한다.

또 순천지방에는 옥성기라는 놋그릇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일명 궁구름옥성기 또는 옥바리라고 하며 근래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반방짜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릇의 절반쯤은 손쉬운 주물식으로 만들고 그릇의 끝부분은 집게로 집어가면서 오목하게 두드리거나 짓눌러 만드는 방법이다. 그릇의 주둥이가 몸체보다 좁아 주물 제작이 어려운 주전자와 같은 것은 주물과 방짜기법을 절충한 반방짜기법으로 제작했다. 즉 몸체는 주물기법으로 만든 뒤 필요한 부분만을 단조로 처리했다.

주물이나 방짜기법 모두 기형이 잡힌 뒤에는 갈이틀에 걸어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완성한다. 방짜유기는 충격에 강하여 수명이 길다. 방짜기법은 예로부터 인체에 유독한 혼합물이 배제된다고 하여 식기류를 제작하는데 주로 쓰였던 기법이다. 또한 옛 풍물악기를 제작하는데도 적합한 것이 방짜유기였다. 식기합도 부유한 양반가에서는 방짜합을 많이 사용하였고 일반 서민들은 주물합을 흔히 사용하였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식기, 제기는 물론 악기, 일반 생활용구에 이르기까지 주물유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전성기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남한의 평야지방의 놋그릇은 작고 아담하며 섬세하다며, 북한 산간지방의 놋그릇은 비교적 그릇이 크고 거친 편이다.

경기도 안성은 전통적으로 유기 제조로 유명하였다. '안성맞춤' 이라는 표현도 안성의 유기에서 나온 것이다. 1945년 경 안성 일대에만 공방이 20여 개 있었을 정도로 성황이었으나, 연탄이 보급되면서 변색이 잘 되고 닦기도 번거로운 유기는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기 제조기술 보유자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유기공예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기장은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되었으며, 기 · 예능보유자로 윤재덕(尹在德 : 반방짜, 1994 해제) · 이봉주(李鳳周 : 방짜) · 김근수(金根洙 : 주물) · 한상춘(韓相椿 : 반방짜) 등이 있다.

Ⅳ. 유기의 종류와 특징

조선시대에는 유기 사용층이 확대되면서 그 종류도 많아져 크게 반상기(飯床器) · 제기(樂器) · 악기(樂器) · 불구(佛具) · 생활용구(生活用具)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상기(飯床器)는 직접 음식을 담는 식기류를 말하는데 유기는 무독, 무취의 금속으로 알려져서 식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주발 · 대접 · 종지 · 보시기 · 쟁첩 · 숟가락 · 젖가락 · 쟁반 · 놋상 등이 있다.

제기(祭器) 즉 제사용 놋그릇으로는 잔 · 잔대 · 탕그릇 · 적틀 · 편틀 · 포틀 · 약기 · 종지 · 제기접시 · 접시 · 주전자 · 촛대 · 향로 · 향합 · 작 · 보 · 궤 · 초심지가위 등이 있다.

악기(樂器)는 대부분 방짜기법으로 만드는데 농악기의 꽹가리 · 징 그리고 불교에서 쓰이는 바라(자바라) 등이 있다. 장구 부속품인 장구꺽쇠(갈고리쇠—장구의 채편과 북편을 연결하는 조임줄을 테에 거는 쇠)의 재료도 놋이다.

불구(佛具)는 절에서 쓰이는 도구를 말한다. 승려가 의식을 행할 때 쓰는 요령(금강령) · 불단에 올리는 밥이나 쌀을 담는 불기(佛器) · 불발(佛鉢) · 좌종 · 놋동이 · 향로 · 촛대 · 향합 · 바라 · 범종 · 정병 등이 있다.

생활용구(生活用具)는 부엌살림용구 · 문방용구 · 일반생활용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엌살림용구에는 양푼 · 주걱 · 국자(복자) · 주발(놋쇠로 만든 밥그릇) · 수저 · 대접 · 귀때그릇 · 새옹 · 밥통 등이 있다. 문방용구에는 휴대용 붓통과 먹통이 붙어 있는 필묵통 · 먹통 · 연적 · 학교종 등이 있다. 일반생활용구로는 큰 세숫대야(어린애 출산용) · 작은 세숫대야 · 사랑요강 · 안방요강 · 화로 · 부젓가락 · 부삽 · 재떨이 · 다리미 · 자물쇠 · 비녀(용잠) · 무구(巫具—신칼 · 무령 · 삼지창 · 명두) · 소방울 · 소코뚜레집게 · 등산 · 엿가위 · 요령 등이 있다.

이들 놋그릇은 시간이 지나면 푸른 녹청이 생기게 된다. 암키와를 곱게 빻은 가루를 수세미에 묻혀 윤이 반질반질하게 날 때까지 닦는 일은 옛 여인들의 일과이자 풍속이 되었다.

동산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청동제품으로는 주발(합) · 대접 · 접시 · 수저 · 정병 · 마상배 · 동경 · 동곳 · 방울 등이 있다.

이제 청동합과 정병 등과 같은 고려시대 제품으로부터 근대의 놋그릇에 이르기까지 동산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유기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본다.

1. 청동합(靑銅盒, Bronze Vessel with a lid)

합은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둥글넓적하며 위에는 뚜껑이 있다. 고려의 식기인 청동합은 대개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방짜기법으로 만들었다.

운두가 높은 청동합은 전체적인 외형이 원구형을 하고 있다. 직립 구면을 지닌 몸체는 아래로 가면서 약간 벌어지다가 저면을 둥그렇게 처리하고 굽을 부착하였다. 뚜껑은 직립된 구연부 위로 턱을 두고 둥그렇게 솟아오르다가 윗면에서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유기가 실생활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이며 청동발이 굴중과 반가에서 밥그릇으로 쓰이게 되었다.

조선 중엽에는 이 합이 양반가를 비롯하여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실생활 용구로 널리 쓰였다.

2. 청동수저(靑銅匙箸, Bronze Spoons and Chopsticks)

밥이나 국을 떠먹는 식사 도구로 보통 수저라 하면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한 벌을 이룬다.

수저는 상고시대에는 주로 청동제품이었고 이어서 놋쇠, 백동, 은으로 변천되면서 형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시대가 오래될수록 숟가락의 깊이가 깊고 자루가 곡선을 이룬다. 고려시대의 숟가락은 면이 좁고 길며 세련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자루 끝은 제비 고리처럼 두 갈래로 갈라졌으며 옆에서 보면 S자형으로 휘어져 있다. 자루에는 음각선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면이 넓고 둥글어졌고 자루의 휨 정도도 적어졌다. 유물의 색조는 흑청색을 띤다.

이러한 수저를 무덤에 부장품으로 넣는 것은 환생에 대한 표상이다. 그리고 숟가락의 손잡이 부분이 연미형(燕尾形)인 것은 성공과 번영을 뜻한다.

3. 마상배(馬上杯, Winecup)

말 위에서 사용하는 술잔이다. 팽이모양의 것과 높은 굽에 손잡이가 달린 배(杯)가 있는 것이 있다. 삼국시대 토기에 그 예가 있으며, 고려시대에 들어와 순청자(純青磁)·상감청자(象嵌青磁)로 많이 만들어졌으며, 청자 마상배는 저부(底部)가 뾰죽하며 몸체가 둥글고 주둥이가 오므라졌다.

조선시대의 백자 및 분청사기(粉青沙器)에는 높은 굽다리가 달린 술잔으로 만들어 사용되었다. 보통 술병과 함께 사용되며 잔치와 제사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4. 동경(銅鏡, Bronze Mirror)

구리 또는 구리합금(청동)으로 만든 거울이다. 동경은 이집트, 인더스 문명, 중국, 베트남, 한반도, 일본 유적에서 폭넓게 발굴되었다

동경은 동판(銅板)의 표면을 잘 다듬고 문질러 얼굴을 비추어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뒷면에는 가지가지 아름다운 문양이나 길상어(吉祥語) 등을 새겨 사용하였다. 청동기시대에 이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정교한 작품이 만들어졌으나 삼국시대 이래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유물이 거의 없다.

형태는 원형·방형·장방형·오화형(五花形)·육화형·팔화형·사릉형(四稜形)·육릉형·팔릉형 등으로 세분된다. 그 밖에도 종형(鐘形)과 자루가 달린 병경(柄鏡), 매달게 되어 있는 현경(懸鏡) 등이 있다.

동경은 무늬가 전혀 없는 소문경(素文鏡)도 있고 무늬를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 또는 선각(線刻)으로 무늬를 표현한 것도 있다. 또 상감(象嵌)·금은평탈(金銀平脫)·나전(螺鈿)·은첩도금(銀貼鍍金) 등의 기법을 구사하여 화려하게 만들기도 한다.

동경은 원래 화장용구이지만 도덕적으로 마음의 거울로서 비유되기도 하였다. 무덤이나 탑 속에 거울을 넣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녔다고 해석된다.

어쨌든 동경은 그 문양에 나타나는 바에 따라 각기 그 시대의 사상이나 신앙을 짐작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제작과정에 대한 공예기술을 보여 주는 좋은 자료이다.

5. 동곳

상투를 튼 정수리에 상투가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데 꽂는 장신구이다.

윗부분은 반구형(半球形)이고 밑은 약간 굽었거나 똑바른 것, 말뚝같이 생긴 것이 있다.

신분에 따른 제한은 없었으나, 의관정제를 선비의 도리로 삼던 양반층의 유물을 보면 금·은·옥·밀화·호박·마노·비취·산호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호사를 짐작할 수 있다. 일반서민은 나무나 뿔을 사용하였다. 길이는 약 4센티미터 정도이다.

6. 용잠(龍簪, Ornamental Hairpin)

비녀란 부녀자가 쪽을 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꽂거나, 관(冠)이나 가체를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꽂는 장식품을 말한다.

용잠 혹은 용비녀란 조선 시대 여자 머리 장식의 일종으로 비녀의 일종이다. 비녀와 마찬가지로 가채나 머리 장식을 고정하는 핀의 역할을 하는 용잠은 비녀의 형태에 장식을 하여 끝 부분이 용처럼 보이도록 한 것을 뜻한다.

조선 시대의 복식이라고는 하나 비녀 자체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으며 용이나 봉황을 형상화 한 큰 비녀는 예복용인 경우가 많다. 얹은머리 대신 쪽머리를 함에 따라 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생겨난 머리 모양이기도 하며 2월에 옥모란잠을, 5월에 민옥잠과 반자를, 10월부터 정월까지 도금한 용잠을 꽂는다.

여아의 성인식인 계례에서는 족두리를 얹고 용잠을 꽂는 것으로 녹색 저고리에 붉은색 치마로 의식을 치렀다.

7. 징(Gong)

징은 농악이나 무속음악 등에서 사용하는 놋쇠로 만든 대야 모양의 타악기이며, 대금(大金)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때 명나라에서 들여와 군진에서 취타용으로 사용했으며, 이후 종묘제례악, 무속음악, 불교음악 및 농악에 두루 사용되었다. 원래 징은 북과 함께 군대에서 쓰일 경우 북은 전진의 신호였고 징은 후퇴의 신호였다.

농악에서 꽹과리는 잔가락을 치고 징은 매 장담 첫 박에 많이 친다. 그리고 꽹과리는 헝겊을 감자않은 나무채로 치지만. 징은 채 끝에 헝겊을 많이 감아서 치기 때문에 웅장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낸다. 대개 징은 방짜기법으로 만드는 것이 상례다.

8. 바라(Small Cymbal)

바라는 냄비 뚜껑같이 생긴 두 개의 얇고 둥근 놋쇠판으로 만든다. 놋쇠판 중앙의 불룩하게 솟은 부분에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 그것을 양손에 하나씩 잡고 서로 부딪쳐서 소리를 낸다.

바라는 군대 행진곡의 대취타에서 징, 날라리(태평소), 나발과 함께 사용된다. 또한 불교 의식무의 하나인 바라춤을 출 때도 사용된다.

무속에서는 무당이 바라를 치면서 소리를 하고 춤을 춘다. 두 개의 바라를 무명천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줄바라라고 한다.

9. 촛대(燭臺, Candle Stick)

촛대는 기다란 막대에 송곳같이 뾰족한 부분이 있어 초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초를 받치는 부분은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아래로 내려 갈수록 지름이 굵어져 안정감이 들도록 만들어졌으며 기둥의 중간 부분에는 단순함을 피하기 위해 조각하여 화려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주로 놋쇠나 철로 만들어졌으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주택양식이 세련되어지면서 촛대의 의장도 매우 화려

하고 다양해졌고, 은 도자기 등으로도 제작되어 실내장식의 역할도 했다.

촛대 두 개를 쌍으로 제상이나 혼례상에 쓰는 전통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10. 요령(鐃鈴, 금강령, Buddhist Ritual Bell)

금강령(金剛鈴)은 불교 의식 때 흔들어 소리를 내어 여러 불, 보살들을 기쁘게 해주고 어리석은 중생을 성불(成佛)의 길로 이끌어 주는 불구의 하나이다. 그 형태는 종(鐘)에 번뇌를 없애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금강저(金剛杵)의 형태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강령은 손잡이의 형태에 따라 독고령, 3고령, 5고령, 9고령, 보주령(寶珠鈴), 탑령(塔鈴) 등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3고령과 5고령만 볼 수 있다. 몸체에는 주로 불법을 수호하는 오대명왕(五大明王)을 비롯하여 사천왕, 팔부중(八部衆) 등 호법신장상이 표현되어 있다.

11. 청동정병(靑銅淨甁, Bronze Kundika)

정병(淨甁)은 깨끗한 물이나 감로수를 담는 병이다. 〈법화경〉 권 하에 의하면 원래는 승려가 반드시 지녀야 할 18물중의 하나였던 것이 점차 불전에 바치는 깨끗한 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정병은 부처님 앞에 바치는 공양구 뿐 아니라 관음보살이 가지는 지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였다.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정병은 가늘고 긴 목에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넓은 어깨 부분에는 뚜껑이 있는 주둥이가 나와 있는 독특한 형태라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주로 청동이나 점토로 만들어지나 금, 은을 사용하기도 한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융성과 함께 특히 많이 제작되었는데 장식 문양에서 독특한 은입사(銀入絲) 기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12. 양푼(Brass Basin)

운두가 얇고 바닥이 편평한 놋그릇으로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데 쓴다. 양푼은 사대부 집에서 주로 쓰던 용기로 대, 중, 소로 되어 있다. 남쪽지방에서는 주발과 같은 자그마한 놋그릇이 발달한 반면, 양푼은 놋대야 등과 더불어 북쪽 산간지방에서 크게 발달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놋그릇이 서민들에게 까지 필수품으로 등장하면서 주발, 대접, 등과 같은 소형기물이 손쉬운 주물기법으로 만들어졌을 때에도 양푼은 여전히 우리나라 특유의 제작기법인 방짜기법으로 만들어졌다.

방짜로 된 양푼은 휘거나 잘 깨지지 않을뿐더러 변색도 잘 안되고 쓸수록 광택이 나는 장점이 있다. 이렇든 귀하고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웬만한 사대부 집에서도 양푼에 금이 가면 그대로 버리지 않고 놋쇠로 땜질을 해가며 썼다. 양푼은 다용도로 쓰여 죽을 쑤어 담거나 곰을 고아 담기도 하였고, 떡을 반죽하거나 나물을 무칠 때 사용하기도 하였다.

13. 주걱(Spatula)

밥 따위를 그릇에 담을 때 쓰는 용구로 둥글넓적한 바탕에 자루가 달려 있다.

주걱은 그 용도로 보아 밥의 출현과 함께 생긴 것이다. 식생활사상 곡물 요리의 가장 원초형은 죽 요리였고, 다음 단계가 시루에 쪄내는 방법이었으며, 그 다음 단계로 발달된 것이 밥이다. 밥을 짓기 시작한 연대는, 경주 금관총에서 4~5세기경의 솥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대개 이 무렵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걱도 이때에 생긴 것이라고 본다면 국자보다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용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걱은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그 재료가 놋쇠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주걱의 용도가 밥을 푸는 일 외에, 고추장을 담글 때 쓰이는 등 사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나무나 대나무로 만들고 놋쇠로도 만들었다.

14. 국자(Dipper)

액체로 된 음식물을 뜨는 데 사용되는 용구이다. 형태는 액체가 잘 담길 수 있도록 바탕이 움푹하게 패어 있고, 뜨거운 국물을 떠내기에 안전하도록 수직으로 긴 자루가 달려 있다.

국자의 사용 시기는 이미 석기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신석기시대의 유물인 김해 회현리 패총에서 국자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조개무지에서 12㎝가량의 부채 모양으로 생긴 조가비 한쪽 끝에 두 개의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 자루를 달아 국자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의 국자는 대개 죽을 뜨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기시대에 죽을 끓여 먹었을 가능성은 화식(火食)의 조리법을 말해주는 화로가 발견되고, 또 곡물을 가는데 쓰였을 맷돌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국자는 고려시대로 와서 국이 대표적인 부식으로 발달됨에 따라 필수 용구로 등장하였으며, 이때는 식기의 주재료였던 놋쇠로 만들어져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15. 새옹(Small Brass Kettle)

적은 양의 밥이나 죽을 지을 사용하는 작은 솥으로 일명 노구솥이라고도 한다.

무쇠나 놋쇠를 그 재료로 하는 새옹은 일반 솥의 모양과 비슷하지만 일반 솥에 비해 바닥과 배가 대체로 편평한 편이다. 즉, 솥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그 모양이 매우 작은 것을 말한다.

밥을 지은 후에 그대로 상에 올리기 때문에 요즘의 냄비처럼 들쇠가 달려 있다.

새옹은 특히 당제나 굿 등의 제사 때 현장에서 직접 밥을 지어 솥 째 바치기도 한다. 그리고 산삼이나 인삼과 같은 희귀한 약초를 캐는 일을 업으로 삼는 심마니들은 입산에 앞서서 산신제를 드리게 되는데 메밥을 짓는데에 새옹을 사용한다. 또한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 급하게 밥을 지을 경우 간편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16. 상(床, Small Table)

놋으로 만든 둥근 상이다.

일반적으로 상이란 물건을 놓거나 물건을 얹어 사용하기 위하여 밑에 받치도록 만든 기물을 일컫는 말이다.

소반 · 책상 · 평상 · 제상 등을 두루 통칭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반을 지칭한다. 판판한 널에 발이 달린 형태를 띠며 나무 · 금속 · 돌 · 도자기 등으로 만드는데 자개를 박고 칠을 하거나 조각하여 장식하기도 한다. 상의 높이는 20~35㎝ 사이이며 30㎝ 미만이 보통이다.

밥상의 고형(古型)은 1944년 낙랑고분에서 발견된 삼족동반(三足銅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상의 모양은 둥글며 안쪽에는 사엽좌문(四葉座文)이 음각되어 있고, 매미형의 발굽을 한 세 개의 다리가 붙어 있다.

상은 단풍나무와 대추나무로 만든 것이 가벼우면서도 매끄러워 쓰기에 간편하다. 상의 겉면에 칠해지는 도료는 대개 생 옻칠이다.

상은 다리의 모양에 따라 범다리형의 호족반(虎足盤), 개다리형의 구족반(狗足盤), 외다리가 박힌 판의 밑부분에 외다리를 받치는 4개의 다리가 붙어 있는 단각반(單脚盤), 운각이 '亞' 자 모양인 아자반(亞字盤) 등으로도 구분된다. 그리고 생산지에 따라 통영반(統營盤) · 나주반(羅州盤) · 해주반(海州盤)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17. 필묵통(筆墨筒, Portable Pencil Case with Inkpot)

붓과 먹물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용기이다. 먹물을 담아놓는 먹통은 벼루를 만들어 사용하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것은 벽돌이나 기와를 벼루 대용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먹을 갈아 그 즙을 먹통에 담아 두었다.

그렇지만 먹은 사용할 때 갈아서 바로 쓰는 것이 좋고, 오래 두면 안되었기 때문에 사랑방에 먹통을 꼭 구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단지 하급관리나 목수 등 현장에서 바로 기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벼루에 먹을 갈아서 쓸 시간이 없으므로 먹통에 먹물을 담아두고 이를 국자로 퍼서 사용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작은 먹통과 붓을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 그 편리함을 극대화한 것이다.

붓통과 먹통을 'ㄱ' 자형 혹은 'ㄴ' 자 형으로 붙여 놓거나, 끈으로 연결해 놓은 것으로 행연(行硯)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붓통은 붓갑이라고도 하며, 먹통은 묵호(墨壺)라고도 한다.

붓통과 먹통에는 각각 뚜껑이 달려 있는데 먹통 안에는 작은 막이 있어 먹물이 위로 튀는 것을 방지하였다.

18. 연적(硯滴, Container for Inkstone Water)

적절한 양의 물을 담아 먹을 갈거나 채색할 때 부어 주는 도구이다.

벼루에 먹을 갈아 붓으로 문자를 쓰거나 채연에 물감을 풀어 그림을 그릴 때 벼루에 적당한 양의 물을 떨어뜨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고안된 그릇이다.

연적에는 구멍 둘을 내어 공기를 조절함으로써 연적 안에 물을 넣고 또 원하는 만큼의 물이 나오도록 조절하였다.

삼국시대 이래 벼루를 써왔으므로 연적도 함께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에 들어와서는 아름다운 청자연적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 전하고 있는 청자연적의 예로는 동자(童子)모양 · 도석인물(道釋人物) · 원숭이 · 원숭이 모자형 · 오리모양 연적 등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그 형태가 다종다양하여지고 수효도 많아진다. 조선시대 연적은 조선 전반기에 분청으로 만들기도 하였으나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백자연적이다.

형태로는 원형 · 또아리형 및 4각 · 6각 · 7각 · 8각 등 다각형의 것과 보주형 · 무릎형, 복숭아 · 감 · 부채 · 집모양 및 동식물 · 조충류 · 산형(山形) · 악기 등을 본뜬 상형(象形) 연적이 많고, 후기에 와서는 투각 등의 기법이 가미되어 형태가 더 다양하게 되었다. 백자 위에 청화로 사군자 등 문양을 그려 넣기도 하고 산수화를 그린 것도 있다. 조선시대 순백의 연적은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잘 나타내 준다. 동산박물관 소장품은 놋쇠로 만들어진 흔치 않은 연적이다.

19. 대야(大匜, Wash Basin)

대야는 물을 담아서 낯, 손, 발 따위를 씻는데 쓰는 둥글넓적하게 생긴 그릇으로, 고려시대의 상류층은 청자로 구운 청자대야도 썼으며 근래에는 양은으로 만든 양은대야도 썼다.

놋 제품에는 불에 달군 놋쇠를 두드려서 만드는 방짜와, 아연을 섞어 만드는 주물유기의 두 가지가 있으며 징, 꽹과리, 양푼들과 더불어 방짜의 대표로 손꼽힌다.

놋대야는 놋요강과 함께 혼수품의 한가지로 손꼽혔다. 이것은 오래 쓰면 때가 끼는 까닭에 놋주발처럼 한 해에 한 두 차례는 기와 가루 등으로 닦아야 했다.

20. 요강(尿缸, Chamber Pot)

요강은 야간에 방에 넣어두고 용변을 보는 실내용 변기이다. 옛날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고 혼수품 중의 하나였다. 대개 놋쇠나 사기 등으로 만들었는데, 고유의 놋요강은 일제시대에 사기요강으로 많이 대체되었다.

요강은 부여 지방에서 삼국시대 유물과 함께 출토될 만큼 예로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생활용품이었으며 모든 계층에서 사용하는 필수품이었다. 주로 방에 놓고 사용했지만, 여성이 가마로 여행할 때에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요강의 재료는 도기, 자기, 유기, 목칠기 등 다양한 편으로 어느 시대에나 다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말기의 〈임원경제지〉를 보면 "놋요강은 조그만 백자 항아리 모양과 같고, 뚜껑이 있는데 규방의 용기이다. 백자로 만든 것은 동부(胴部)를 끈으로 엮어두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동나무로 깎아 옻칠한 것은 휴대용이나 서재용으로 좋고, 쇠가죽으로는 기름을 먹여 만든다"라고 하여, 요강의 재료에 따른 용도를 설명하고 있다.

동산박물관 소장 유물은 놋쇠를 일일이 두드려 만드는 방짜기법으로 만들었으며, 아가리에 비해 배가 풍만하여 뚜껑 중앙은 오목하게 들어 가 있다. 주로 밤에 사용하며 뚜껑은 뒤집어서 재떨이로 사용할 수도 있다.

21. 화로(火爐, Brazier)

숯불을 담아 두는 그릇이다. 화로는 불씨를 보관하고, 방의 외풍을 막으며, 바느질할 때 인두를 꽂아 두고,

찌개를 데우며, 군밤이나 토란을 구워 먹을 수 있고, 언 손을 녹이며, 담뱃불을 붙이고, 물을 끓여 차를 만들고, 아울러 실내의 건조함을 막는 등 다양하게 쓰였다.

화로의 기원은 선사시대의 중앙로(中央爐)라 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수족형(獸足形)다리를 한 화로가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다리가 없는 것 또는 3족형(三足形)의 화로가 많이 쓰였다. 조선 중기의 풍속에는 놋그릇을 중요하게 여기어 모든 그릇을 놋으로 만들어 썼다.

따라서 화로도 놋으로 만들었으며 그 밖에 철, 흙(자기, 토기, 도기), 곱돌 등으로도 만들어 재료에 따라 놋화로, 무쇠화로, 질화로 등으로 부르며 형태에 따라 수로(手爐),전화로 등으로 불렀다.

사랑에서 사용하는 수로는 발이 없고 안방이나 부엌에서 사용하는 화로 보다 크기가 작으며 전은 따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발이 없으므로 밑면에 나무로 만든 밑받침을 대는 것이 통례이다. 재료로는 놋쇠, 곱돌이 가장 많이 쓰였고 자기로 된 것도 있다.

금속제 화로의 표면에는 길상문자, 십장생, 석류, 국화, 뇌문(雷文), 만자문(卍字文) 등을 조이질로 장식하였다.

22. 재떨이(Ash Tray)

담배를 피울 때 담뱃재를 떨기 위한 도구이다. 예전의 곰방대는 지금의 궐련과는 달리 가루담배를 이용하여 피웠기 때문에 담배를 다 피운 후에는 담배통을 다른 부위에 부딪혀 그 재를 빼내야 했다. 따라서 지금의 궐련보다는 재를 떨기가 매우 불편하였고, 그 재 또한 양이 매우 많았다.

초기의 재떨이는 지금의 것보다 외형상 크기와 용적이 매우 컸다. 재떨이의 등장은 조선 광해군 10년(1618)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담배가 수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담뱃대, 담배합 등의 끽연구와 함께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떨이의 재료는 주로 유기제품을 많이 이용했지만, 일반 서민들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재떨이는 하나의 원으로 이루어졌지만, 가끔은 2개의 원을 파서 거북이 형태로 만든 것도 있다. 이는 거북이가 물에 사는 동물이라, 재를 떨었을 때 불이 빨리 꺼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가 남성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에 재떨이는 담뱃대, 담뱃대꽂이, 담배합 등과 함께 사랑방 및 누마루 등 남성들의 공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생활도구로 여겨졌다. 그래서 사랑방의 곰방대 두드리는 소리는 그 집안의 사랑방 권위의 상징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궐련이 생산되면서 예전의 덩치 큰 재떨이 보다는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내세운 다양한 형태의 재떨이가 발달되었다.

23. 다리미(Iron)

숯불을 담아 그 열로 옷감의 구김살을 펴고 주름을 잡는데 쓰이는 용구이다. 재래식 다리미는 주철이나 놋쇠로 만들었다. 숯불을 담는 곳은 오목한 대접처럼 되어 있으며 바닥은 옷감의 구김이 잘 펴지도록 매끄러운 평면으로 만들었다. 지름이 약 20cm가량 되며 여기에 나무로 된 손잡이를 박아서 쓴다. 나중엔 안쪽 바닥에 방사선 모양의 돌기를 만든 형태가 나타난다.

옷이나 천을 다릴 때에는 두 사람이 다림질감을 마주 잡아 당기며 다리미로 그 위를 문질러서 다린다. 1900년대 이후에는 오늘날의 전기 다리미와 같은 형태의 다리미가 나왔는데 그 속에 숯을 넣어서 가렸다. 그 밖에 숯불이나 연탄불 위에 다리미를 올려놓아 달군 뒤에 옷을 다리는 다리미도 있다.

24. 자물쇠(Lock)

여닫게 되어 있는 기물을 잠그는 쇠로서 장석의 일종이다. 자물쇠는 방문이나 곳간 문 뿐만 아니라 옷장, 책장, 반닫이, 뒤주 등과 같은 가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열쇠가 없으면 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자물쇠의 역사를 보면,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삼국시대에 이미 'ㄷ' 자형의 자물쇠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는 특히 'ㄷ' 자형 자물쇠가 가장 널리 사용되었으며 은혈자물쇠, 선자물쇠 등 다양한 형태의 자물쇠에 대한 문헌기록들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자물쇠는 크게 자물통과 잠글쇠 그리고 열쇠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물 기법이나 판금 기법으로 제작되어 땜 처리로 마감하였다. 재료는 주석, 철, 백동 등이 쓰였다.

붕어자물쇠는 자물통을 물고기 형상으로 만든 자물쇠이다. 흔히 물고기를 다산(多産)과 어변성룡(魚變成龍) 즉 다남(多男)과 입신양명(立身揚名)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또 옛사람들은 물고기가 눈을 뜨고 잔다고 생각하여 재물을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뒤주나 그 밖의 재물과 관련되어 잠금장치로 사용되었을 때에 물고기는 대개 금붕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금붕어의 한자 표현인 금어(金魚)가 중국 음으로 금여(金餘) 즉 '재산이 넉넉해지기를 바란다' 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25. 신칼(Shaman Swords)

굿에서 쓰이는 무구(巫具)의 하나이다. 신(神)칼은 일반적으로 무당 칼, 장군 칼 이라고도 한다. 무당이 굿에서 사용하는 도검류로는 신칼, 언월도, 삼지창, 작두 등이 있다.

칼은 물건을 자르는 실용적인 용도도 있지만 상징적인 용도로도 사용된다. 이때 칼은 통솔자의 권위를 나타내거나 제의에서 신의 위엄과 영험함을 나타낸다. 무속에서는 주로 영웅신이나 역병이나 악귀를 물리치는 성격을 가진 신령을 제사지낼 때 그 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된다.

신칼은 보통 똑같은 두 개의 칼이 한 쌍을 이룬다. 칼은 놋쇠나 무쇠로 만드나 그 칼날이 무디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이나 물체를 써는 것은 아니다.

26. 무령(巫鈴, Shaman Rattle Bells)

굿을 할 때 무당이 손에 들고 흔들어 신을 청하는 무구로 무령(巫鈴)은 일반적으로 '무당방울' 이라고 부른다. "방울 부채도 없는 무당도 있나"하는 격으로 방울은 부채와 함께 강신무당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무구(巫

具)이다. 무당이 무령을 흔드는 것은 그 소리가 악귀를 쫓고, 신령을 부르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무령은 굿에서뿐만 아니라 점을 칠 때도 사용되었다.

무령은 무구 중에서도 연원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기원은 청동기시대까지 올라가는데 제천의식에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무당이 점을 칠 때나 굿을 할 때 사용되는 방울은 금속제의 방울 일곱 개를 16~17센티미터 길이의 자루 끝에 둥근 테를 묶은 형태의 칠성방울이 가장 많다.

방울의 모양새는 몸통 한쪽 부분이 약간 입을 벌리고 있어 마치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 모양새가 목탁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형태의 방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울 안에 추가 들어있어 소리를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울 안에 추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울을 한 묶음으로 묶어 각각의 방울들이 서로 부딪치면서 화음을 내는 것이다. 방울 소리는 신의 행동과 말이 음(音)화 된 것이고 무당은 방울 소리를 내어 신을 부르고 교신한다.

27. 명두(明斗, 明圖)

중 · 북부지방에서 사용되는 원형의 금속 무구를 말하는데 명두(明斗) · 명도(明圖)' 라고도 한다. 명두는 놋쇠제품으로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지름은 20㎝ 내외이다. 앞면은 밥그릇 뚜껑처럼 배가 약간 불룩하고 매끈하게 반들거린다.

뒷면은 대개 우툴두툴한데, 여기에 해와 달, 칠성(七星) · 범자(梵字)들이 양각되어 있다. 가운데에 고리가 붙어서 여기에 무명끈이 매어진다. 이와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삼맹두(3명두)' 라 하여 신칼 · 요령 · 산판을 지칭하기도 해서 지역 차를 느끼게 한다.

중부지방의 명두는 큰무당이고 스승격인 신어머니가 많은 제자인 신딸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하여 자기의 대를 물려줄 경우 그 상징물로서 명두를 물려준다. 큰무당의 경우에는 명두를 여러 개 갖는데, 이러한 명두들은 선대 무녀들의 무령(巫靈)으로 간주된다. 또한 굿할 날짜가 동시에 두 집에 잡히면, 한 집에 가서는 굿을 하되 가지 못하는 다른 집에는 대청에 명두만 걸어놓았다가 다시 날을 택해서 굿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명두를 명두바릿대라고도 하는데, 찹쌀을 가득 담은 작은 함지에 꽂아놓고 축원을 하고, 명두를 뽑아서 뒷면에 쌀알이 붙어 있는 수를 보고 점괘를 푸는 경우도 있다.

쌀알의 수가 짝수로 떨어지면 불길하고, 홀수로 끝나면 길한 괘라고 믿는다. 결국 중 · 북부의 명두는 사제계승제(師弟繼承制)의 무계를 상징하는 것이면서 무령의 상징물이라 하겠다. 때로 명두는 무점구(巫占具)의 구실도 한다. 이러한 명두는 청동기시대의 청동의기(靑銅儀器) 등과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여서 민속문화 탐구에 중요한 기구라 하겠다.

28. 작(爵, Winecup Used in Religious Service)

종묘제기의 하나로 구리로 만든 술잔이다. 각종 제례와 궁중에서 쓰이던 술잔을 높혀 작이라고 부른다. 아래에 세 개의 긴 다리를 달고, 위쪽에는 두 개의 손잡이 기둥을 달아 잔에 담긴 술을 끝까지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다. 보통 청동으로 만들며 아가리의 한쪽이 치켜 올라가 있다.

29. 보(簠, Vessel Used in Religious Service)

종묘제례 때 쌀밥과 기장밥을 담는 놋그릇이다. 음(陰)에 속하는 제기로 제상의 가운데에 올린다. '땅은 모지다' 라는 뜻을 담아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으며 양쪽에 손잡이가 있다. 굽이 달리고 뚜껑이 딸려 있다.

30. 궤(簋, Vessel Used in Religious Service)

종묘(宗廟) · 문묘(文廟) 및 그 밖의 나라 제사에 메기장밥과 피밥을 담는 놋그릇이다. 보의 앞줄에 올리는 양(陽)에 속하는 제기(祭器)이다. '하늘은 둥글다' 라는 뜻을 담아 둥글게 타원형으로 만들었다. 몸체 양쪽에 손잡이가 있으며 굽이 달리고 뚜껑이 있다.

Ⅴ. 맺는말

이번 유기전은 그동안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존재가 잊혀졌던 고유의 생활기물을 통해 전통적 생활문화를 되찾은 감회를 느끼도록 한다.

불과 수 십 년 전만해도 유기는 도자와 더불어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생활용품이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의 발달로 합금 제품이나 화학 용기에 밀려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고, 어느덧 유기라는 이름조차 낯설게 되었다.

조선시대까지 목기(木器), 도자기와 함께 식생활문화의 주역 역할을 해왔던 유기는 구리나 철과 같은 금속을 주 재료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이나 장식품을 만드는 일종의 금속공예품이라 할 수 있다.

현대공예는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구성하여 형상화하지만, 전통공예는 오랜 역사적 경험의 문화적 뿌리에서 생성되는 것이기에 한 시대적 창작물이거나 한 개인의 작품이라 말할 수 없다.

유기는 예로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사용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아온 제품이다. 실제로 유기는 무독무취의 무공해 금속으로 어떤 재료보다도 안정성을 지닌다. 최근 각종 실험을 통해 유기가 병원균 특히 대장균 O-157 살균기능, 농약성분 검출기능 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열보존률을 보면 사기그릇, 스테인리스, 방짜유기 중 방짜유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유히 흐르는 역사를 통한 생활문화 속에 기초하는 전통공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의 연결고리를 갖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전통공예의 계승이란 옛 문화의 답습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위에 새로운 모습을 재창조하고 활성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 그리고 창조성이 깃든 계승은 한민족 공예 문화의 고유성을 존속시켜줄 수 있는 정신적 토양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형태의 유기를 재조명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전통 기술에 현대적 공예미가 가미되어 현대생활에 적합한 생활용품, 문방구, 장식품등의 개발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사료

『世宗實錄』

『成宗實錄』

『肅宗實錄』

『經國大典』(법제처 역주, 일지사, 1981)

2. 단행본

김광언, 『한국의 부엌』, 대원사. 1997

김원룡, 『韓國 古美術의 理解』,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김종태, 『안성유기의 전래』, 안성군청, 1982

김종태, 『유기장』, 문화재관리국, 1982

국립청주박물관, 『고려공예전』, 예백출판사, 1999

동산도기박물관, 『전통화로 특별전』, 2000

민족문화사, 『한국 민속 대사전』, 1991

이건무, 『청동기 문화』, 대원사, 2000

이정복, 『한국의 화로』, 동산도기박물관,1999

이호관, 『범종』, 대원사, 1995

장사훈, 『우리 옛 악기』, 대원사, 1995

정동찬 등, 『겨레과학의 발자취 Ⅱ』, 국립중앙과학관, 1996

진홍섭, 『韓國金屬工藝』, 일지사, 198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홍정실, 『유기』, 대원사, 1989

홍정실, 『장석과 자물쇠』, 대원사, 1990

3. 기타

『브리태니커』

『위키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